

1인가구 안부 확인 ‘모바일 안심돌봄’ 광주 전역 확대

광주시, 유무선 전화 착발신 이력 자동 모니터링

특정기간 기록 없을 경우 가정방문 등 통해 확인

광주시는 1인 단독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를 9월부터 광주 전역으로 확대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장년 1인가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위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

무선 전화의 착·발신 이력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기간(1~3일) 통신 기록이 없는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상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서비스 중인 서구와 북구를 포함해 올해 총 7400여 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까지 동구, 남구, 광

산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7~8월 중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집중 모집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대상 가구에 별도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유·무선 전화를 활용해 대상자의 거부감 없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발견해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중장년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주기적인 방문을 거부하는 고위험군 가구를 중점 관리하고, 기존 인적안전망인 위기가구발굴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장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소통

장흥군은 지난 5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41명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됐다.

장흥군은 2020년부터 기존에 시행

하던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3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했다.

방문안전 지원, 가사 및 청소지원, 기타서비스 연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의 4(four)메카 등 군정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경로당 재개관 친환경 살균소독액 배부

무안군은 휴관했던 경로당이 10일 재개관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409개소에 일제 친환경 살균소독액(차아염소산 나트륨수)을 배부하여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군은 친환경 살균소독액을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배부하여 손잡이, 출입문, 화장실 등 다수가 접촉하는

표면을 닦고 살균소독 후 환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한 친환경 살균소독액은 화학 약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수시로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업무 전담할 전문관 채용해야”

내일 추모제 후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서 제안 예정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광주시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관’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9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앞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청년과 엄마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

연대는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신청,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긴급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모연대는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민간 전문

관을 전문관으로 채용하거나 담당공무원 중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중원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광주에서 다중지원(중증)발달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둔 가정에 대한 24시간 휴식지원대책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는 이같은 시설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발달장애인위기쉼터 뿐인데다가 이마저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는 특정조건이 충족돼야 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 수행 및 종사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개소 당 2개의 지역구를 지원해야 하는 현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점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문 상담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부모연대는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가정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 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예산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민선7기 광주시는 인권의 사각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시설 전면 휴관 조치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흥군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소 운영

지역주민들 복지수요 충족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흥군은 “복지야! 동각마실가자. 이동복지상담소” 일명 복·동·이를 5월말 도화면, 도덕면, 봉래면을 시작으로 6월에는 16개 전체 읍·면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동·이(복지야! 동각마실가자. 이동복지상담소)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별 월 2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